

美 대선 사전투표 7천500만명 넘어...우편투표서 승패결정

개봉·확인 시간 소요...2020년 바이든 '승리 선언'까지 4일 "경합주 애리조나, 우편투표 개표 끝내는 데 최장 13일 걸려"

올해 미국 대선은 막판까지 양당 후보가 초반빙 대결 양상을 보인 데다 사전투표자가 많아 '승리 선언'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플로리다대학교 선거 연구소가 집계한 2024년 미 대선 사전투표자는 7천500만명을 넘어섰다.

4천71만9천518명이 사전투표소에서 대면으로 사전투표를 했고, 3천437만4천366명이 우편투표를 했다고 선거연구소는 밝혔다.

사전 대면 투표 기한이 남은 데다 아직 투표장에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 통계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미 대선 사전투표자는 팬데믹 특수성이 작용한 2020년엔 못 미치지만 2016년 대선과 비교해선 많이 늘어난 규모다.

팬데믹 시기 치러진 2020년 미 대선 때는 총 1억145만명이 사전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 6천564만명이 우편투표자였다. 2016년 미 대선 때는 사전투표자가 총 4천724만명, 이 중 우편투표자가 2천422만명이었다.

선거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



미국 대선이 막판까지 초반빙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위해 줄서 있는 모습.

승자 결정이 선거 후 며칠 지나서야 가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많은 주에서 선거 당일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이른 오전에 선거 결과 윤곽이

나올 수 있지만 경합주나 우편투표 처리가 지연되는 주에서는 누가 선거인단을 가져갈지 여부가 며칠이 지나서야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대선 때만 해도 선거 후 3일째가 되도록 최종 승자가 언제 나올지 안갯속인 상황이었다가 4일째 들어서야 각 언론이 '조 바이든 당선' 소식을 타진했다.

팬데믹으로 우편투표가 많이 늘어난 데다 경합주에서 초반빙 승부가 이어졌던 탓이다.

우편투표가 결과 선거 집계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밀봉된 봉투를 열어 선거구별로 분류하고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로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대다수 주는 선거일 전부터 우편투표물의 분류 및 확인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경합주를 포함한 7개주는 선거일 당일 아침에야 우편투표물을 개봉해 분류·

확인하는 작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주의 경우 넓은 지역 특성상 우편투표 비중이 큰데, 우편투표를 투표일 당일까지 접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주들보다 우편투표 개표가 늦게 시작돼 개표와 집계를 모두 끝내는 데 최장 13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기도 했다.

애리조나 주법이 선거일 이후 최대 5일까지 유권자가 서명이나 기타 사소한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도 개표 집계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한다.

올해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많았던 것은 지지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스페인 국왕, 수해 현장 방문...수재민들에 욕설·진흙 '봉변'

당국 낙장대응에 주민들 분노 사망자 집계 217명으로 늘어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대홍수로 큰 피해를 본 현장을 찾았다가 분노한 수재민들에게 욕설과 함께 진흙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외신에 따르면 펠리페 6세는 이번 수해로 최소 62명 사망자가 나온 발렌시아주 파이포르타 지역을 방문했다.

성난 주민들은 피해 지역을 걷는 펠리페 6세와 산체스 총리 일행을 에워싸고 진흙과 오물을 집어 던졌으며, "살인자들", "수치", "까지라"고 욕했다.

경호원들이 급히 우산을 씌우며 보호했으나 펠리페 6세와 레티시아 왕비는 얼굴과 옷에 진흙을 맞는 수모를 피할 순 없었다. 펠리페 6세는 다른 일행보다 더 오래 머물며 주민들을 위로하려 시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을 단축해 서둘러 종료했고 다른 수해 지역 방문도 취소했다.

스페인 왕실은 대중적인 이미지를 크게 신경 쓰며 국왕을 향해 물체를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은 아주 드물다고 한다.

펠리페 6세는 이후 소셜미디어 영상



스페인 발렌시아 도시 파이포르타 수해 현장을 방문한 펠리페 6세 국왕(가운데)에게 성난 주민들이 던진 진흙이 날아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여전히 단전을 겪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이 폭우 '적색경보'를 발령한 때부터 지역 주민에게 긴급 재난 안전문자가 발송되기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당국의 미흡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고 이후 수색과 복구 작업도 느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우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문제와 (자원) 부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재해 대응 관련 "과실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우리의 차이를 잊고 이념과 지역적 문제를 뒤로 하고 대응에 단합할 때"라고 호소했다.

산체스 총리는 "우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문제와 (자원) 부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후 재해 대응 관련 "과실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우리의 차이를 잊고 이념과 지역적 문제를 뒤로 하고 대응에 단합할 때"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이란 여대생, '히잡 항의' 속옷 시위하다 체포"

이란의 여자 대학생이 학교 안에서 이뤄진 히잡 착용 여부 단속에 항의하며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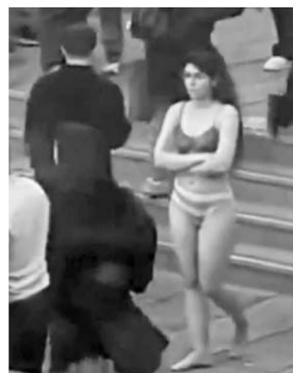
지난 2일 (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란 수도 테헤란의 이슬람아자드대학교 캠퍼스내에서 한 여성이 대낮에 속옷 차림으로 다니는 2분30초 분량의 영상(사진)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도로를 한참 걸던 그의 걸음으로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차에서 내린 이들이 그를 붙잡아 차 안으로 밀어 넣고는 다시 차를 몰아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 영상을 게시한 한 네티즌은 "이 학생은 부적절한 히잡 착용을 이유로 도덕경찰(지도순찰대)의 괴롭힘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속옷만 입은 몸으로 시위하며 캠퍼스를 행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네티즌은 "도덕경찰은 이 여성의 히잡 아래로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고 옷을 찢었다"며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속옷 차림으로 광장에 서 있었던 것"이라고 썼다.

대학 측은 "캠퍼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캠퍼스 보안요원이 조치를 취한 후 사법기관에 넘겼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정



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안요원이 그와 신체적으로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며, 이 학생을 모욕하는 사진 영상을 터는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이란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당국은 폭력적으로 체포된 대학생들 무조건 바로 풀어줘야 한다"며 "석방 전까지 당국은 그를 고문 등 학대하지 말아야 하고 가족 및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히잡은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를 가리킨다. 히잡은 통상 머리와 목, 어깨와 가슴을 덮는 데 얼굴은 드러낸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